

넥센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세계최초 상용화

넥센타이어가 세계 최초로 20시리즈 UHP(Ultra High Performance) 초고성능 타이어를 상용화하고 세계시장 공략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20시리즈(타이어 단면 높이를 단면 폭으로 나뉘 100을 곱한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타이어 높이가 낮음) UHP 타이어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10월29일 시작되는 세계 최대 타이어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2007 SEMA-SHOW에 출품해 세계 시장에 첫선을 보인다고 10월29일 발표했다.

20시리즈 UHP 타이어는 이른바 고(高)인치-초(超) 저(低)시리즈 타이어로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며, 20시리즈 제품 전용설비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다.

제품은 타이어의 공기압과 하중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접지압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초고속의 원심력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고강도 스틸 벨트가 적용돼 노면 밀착성이 우수하고 조종 안정성이 탁월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스포츠카 전용 25시리즈가 상용화의 한계라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넥센의 20시리즈 상용화 제품 출시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SEMA-SHOW에 20시리즈 제품과 함께 SUV 전용 <로디안 MTX>과 겨울용 초고속타이어인 <윈가드 Sport>를 함께 출품한다.

<화학저널 2007/10/30>